

사회과 문제중심학습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효과¹⁾

모 경 환*

< 국문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모형을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 단원에 적용하여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효과를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 6개 학급이며,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4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치 지식의 측면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성취도의 향상을 나타냈다. 일반 정치 지식의 측면과 수업 내용 지식 모두에서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집단이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 참여 성향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여가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증진시켜주었으며, 장차 성인이 되어 실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고양시켜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어: 문제중심학습, 정치사회화, 정치 지식, 정치 태도, 참여 성향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I. 서론

현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지식을 창조하고 구성해내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등의 목표가 강조되고 있다. 문제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학습 모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생활세계의 문제나 이와 유사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사의 강의나 지시를 줄이고 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을 구성해 나가도록 실시하는 수업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재조직하여 교사주도적, 혼시적인 수업 방법을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정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지도하지만, 미리 설정된 학습 활동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에 학생들은 상황을 연구하고 문제를 형성하며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도출한다. 문제중심학습이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수업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수준의 사회과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과 대비하여 문제중심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현재 국내외 사회과 연구에서 문제해결학습 방법을 적용한 경우는 경제교육 단원과 경제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정치 단원과 정치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학습 방법이 고등학생의 정치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정치 단원을 내용으로 문제중심수업 방법을 이용한 실험수업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의 정치적 지식과 태도, 그리고 참여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의 효과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과의 목표인 민주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새로운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과 교사들에게 학습자중심의 수업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제중심학습의 특성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이론의 선각자인 Barrows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기존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방편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인 문제중심학습을 제시했다(Barrows, 1994). 이러한 Barrows의 문제중심학습 모형은 그 후 구성주의적 교육 목표나 지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구성주의에 의한 이론적 지지를 받게 된다(Savery & Duffy, 1994). 그 후 PBL 모형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MBA 프로그램이나 교육 행정가들의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K-12 수준의 여러 과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널리 연구되고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회과에서는 Miller & Vanfossen(1994), Hughes(1997), Hughes, Sears, & Clarked(1998), Mergendoller, Maxwell, & Bellisimo(2000; 2001), 박인옥(2001), 모경환 & 최유리 (2003), 백순화 & 정인철(2003), Moeller & Ravitz(2005) 등의 연구가 문제중심학습을 유용한 사회과 학습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문제중심학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중심학습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develop)하여, 제시(present)하고 설명(explain)하며, 나아가 옹호(defense)할 수 있도록 한다”(Duffy, 1996)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나 ”과제“라는 것은, 문제중심학습이 추상적인 교과 지식보다 실제적인 문제(authentic problems)와 관련된 지식을 구성하려는 교육적 전략임(Navak, 1992: 4)을 고려해볼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Savery & Duffy는 문제중심학습을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사의 지시나 강의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을 구성해 나가도록 치치되는 수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avery & Duffy, 1995: 34).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위의 학습목표에 제시된 “전개”와 “제시”, “설명”, “옹호”와 같은 행동 유형이 학습자 스스로 혹은 학습자들 간의 협동에 의해서 수행되며, 주요한 원리와 개념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이 비록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정 단원에 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단원은 학생들에게 협력의 기술, 의사소통, 일정관리, 의사결정, 자료수집과 분석 등의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표와 그래프를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하게 하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과제들을 성취할 수 있는 고차사고력을 제발한다. 그리하여 문제중심학습 단원에서 학생들은 조사, 연구, 분석, 그리고 협동적 활동을 통해 복수의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2. 선행연구 개관

문제중심학습 방법을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행에 적용하는 경우는 경제 단원에 대한 실험수업이 많았다(Miller & Vanfossen, 1994; Hughes, 1997; Mergendoller, Maxwell,

& Bellisimo, 2001). 박인옥(2001)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수업에서 '합리적 소비'에 대한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문제중심학습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함양하기 어려운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급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문제중심학습은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과 상대주의적인 태도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백순화 & 정인철(2003)은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고등학교 지리 수업에 적용하여 실험수업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학생들이 문제 해결 후 자아존중감과 토론에서의 개방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기 주도성 신장·협동학습법의 습득·학습 동기 지속·실생활 적용기회·문제해결력의 함양 등에서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김선자(2003)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아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최근 Moeller & Ravitz(2005)는 미국 뉴욕 시 10개 고등학교에 벅 연구소(Buck Institute for Education)에서 개발한 다섯 가지 경제단원 모형을 적용하여, 교사들의 낮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중심학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추상적 경제 개념보다는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 등을 밝혔다.

한편,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의과대학에서의 한 연구는, 문제중심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습득하는 데는 전통적 방법에 비해 덜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lbanese & Mitchell, 1993). 또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Vernon & Blake(1993)의 실험에서도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실제 환자를 다루는 능력은 더 뛰어났으나, 일반 의학 지식의 성취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해당 수업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성취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들은 문제중심학습이 수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고등학교 수업 상황은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특성과 다양성, 기관의 지적 목표, 학생들의 지적 성취에 대한 기대, 교실 환경, 학생들의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입학 시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분석적 기능의 계발 보다는 특정 교과 지식의 전수에 초점을 두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적 성취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부담을 감안한다면, 문제중심학습이 지식의 습득을 소홀히 하면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어 진행한

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태도에 대한 문제중심학습과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의 비교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 단원의 문제중심학습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문제중심학습 방법의 지식 습득에 대한 효과도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문제

문제중심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정치 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용으로 실험수업을 하고 문제중심학습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비해 갖는 효과를 비교 검증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의 벅 연구소(Buck Institute for Education)에서 개발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정치 수업모형을 도입 적용하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섯 학급을 택한 후 세 학급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문제중심학습과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과 정치 태도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집단은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집단보다 정치 지식(일반적 정치 지식, 수업 내용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더 큰 성취를 나타내는가?

둘째,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집단이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집단보다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정치적 관심, 정치 효능감, 관용, 참여 성향)의 변화를 나타내는가?

III. 연구 방법

1. 문제중심학습 모형의 설계와 적용

가. 문제중심 정치수업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문제중심 정치수업모형은 벅 연구소(Buck Institute for Education, 2004)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들이 개발한 여섯 가지의 문제중심 정치수업모형(Problem-Based Government) 중 하나인 “On the Campaign Trail”을 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벅 연구소에서 개발한 문제중심 정치수업 모형은 모두 여섯 단원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법원에 관한 단원으로 평등권과 제14 헌법 수정 조

항에 대해서 학습하는 "Fighting Chances".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 모형으로,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후보 홍보 과정을 체험하는 "On the Campaign Trail." 셋째,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역할에 대한 진보적, 보수적 입장을 배우는 "The Better Budget". 넷째, 입법 절차와 로비 전략에 대해서 배우는 "LegiQuest". 다섯째, 헌법, 정부형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배우는 "A Government for Xlandia". 여섯째,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과 무숙자 문제 처리 과정을 배우는 "Not In My Back Yard" 등이다.

문제중심 정치수업 모형인 "On the Campaign Trail" 단원은 주(州) 지방 선거에서 미디어 전문가(미디어컨설팅 회사)의 역할을 맡아, 지역 현안, 유권자의 관심, 상대후보의 전략 등을 고려하여, 의뢰받은 후보 고객을 최대한 홍보하는 전력을 탐색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미지와 현안에 대한 입장이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교묘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분별 있는 정치적 정보의 소비자가 된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우선 미디어가 정치적 후보자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우게 된다. 그리고 선거 본부에서 자기 후보를 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 후보를 위해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하는지도 배운다. 그룹(모둠)별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선거운동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을 맡는다. 각 모듬은 자기들이 의뢰받은,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미디어 전략을 구상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상대 후보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고, 각 팀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이 단원은 의뢰받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편지, 신문 광고, 보도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표함으로써 마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중심 정치수업의 전체 진행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1) 도입 단계(Entry Point)

학생들은 어느 장관으로부터 가상 편지를 받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 편지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미디어 전문가로서 장관의 친구인 시장 입후보자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입후보자가 흠이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받는다.

(2) 문제 상황 작성(Framing the Problem)

교사는 도입 단계의 편지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 다음,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문장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함으로써,”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예를 들면 초기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우리는 ‘한강 컨설팅’ 미디어 팀으로서, 어떻게 장관 친구인 시장 후보를 위한 미디어 전략을 짜서 그가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이 수업 초기에 작성한 문제 상황은 영성하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다듬어 진다.

(3) 지식 목록 작성(Knowledge Inventory):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도입 단계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하지만 아직 모르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이 지식 목록 작성 과정은 수업 전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다.

(4) 교사의 소(小)강의와 대화(Teachable Moments & Dialogues)

교사의 지도가 전혀 없이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경우, 학생들은 자주 문제의 초점을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질문을 던지거나, 짧은 강의를 하거나, 또는 진행 과정에 대해 논평함으로써 수업의 과정을 이끌어 간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재구조화와 재정의의를 하게 된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Research and Resources)

교사는 부가적으로 가상 편지, 읽기 자료, 도표, 기타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이끌어 준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나?”

(6) 문제 상황 일지(Problem Log)

학생들은 “해야 할 일”, 시간 경과(time line), 질문, 관찰 결과, 팀 혹은 개인별 과제의 틀, 자료 목록을 잘 기록해야 한다. 문제 상황 일지는 학생의 탐구 과정 경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질문들,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교사들은 문제 상황 일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겪어온 여정을 점검해 줄 수 있다.

(7) 문제 상황 정리(Exit from the Problem)

학생들은 자신들의 해결 방안을 정립하고, 의뢰받은 후보자의 미디어 전략을 학급에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혹은 모둠별로 발표 준비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신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권위자(authorities)”로서 임해야 한다. 교사는 각 모둠의 모든 성원이 발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8) 요약 및 반성(Wrap-up and Debriefing)

교사는 학급 전체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은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예를 들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난해함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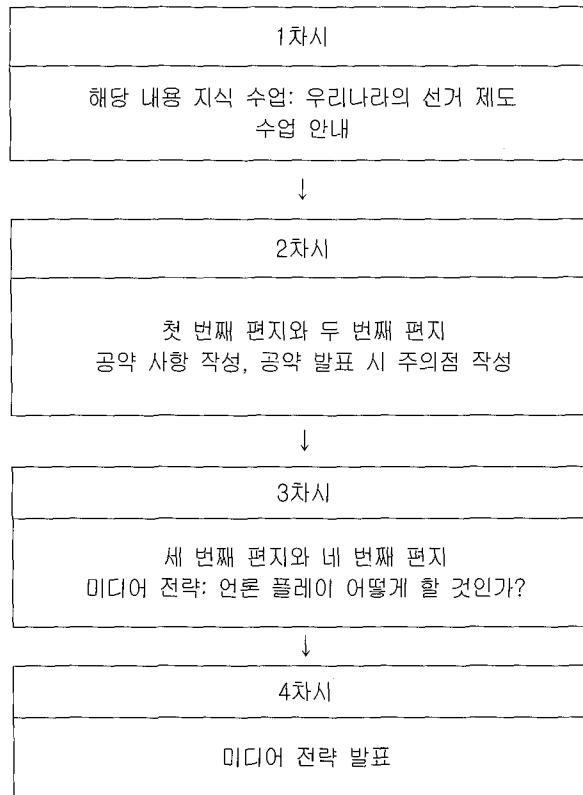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벽 연구소(2004)에서 개발한 문제중심 정치수업 모형 여섯 가지 중에서 ‘On the Campaign Trail’이라는 단원을 선택하여 실험 수업에 활용해 보았다. 이 단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정치 단원의 주요 내용과 이 모형에서 다루는 내용이 유사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정치 VII 단원 ‘정치생활과 국가’의 제2장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의 내용과 맥락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이 단원을 학습하는 시기인 10월에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On the Campaign Trail’ 단원에서는 어느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문제 상황이 주어진다. 장관의 부탁을 받은 학생들은 어느 미디어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로서 장관의 친구인 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미디어 전략을 팀 별로 작성하게 된다. 최초의 편지를 받고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정립한다. 그리고 의뢰받은 후보와 상대방 후보에 관한 정보가 담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교사가 배포한 학습지를 활용하여 자기 후보가 내세워야 할 공약 사항들을 정리한다. 더불어 이러한 공약 사항들을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운다. 이후, 해당 시장 후보의 선거 본부장으로부터 자기 후보가 열세에 몰리고 있음과 그에 대한 이유가 담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캠페인 가능성과 이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상대 후보의 사생활 비리가 담긴 네 번째 편지를 받고, 최종 미디어 전략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전략에 대한 팀 별 발표가 이루어진다.

제1 차시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2학년이나 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 '정치'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여 강의를 하였다. 현행 고1 사회는 정치 부분의 내용 지식이 다소 빈약하기 때문에 지식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실험수업에서 선거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기초 지식에 대하여 한 시간 강의를 먼저 하고, 세 시간 실험수업을 진행하였다.

백 연구소의 수업 모형은 이 수업을 7차시 분량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4차시 분량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4차시 동안 문제중심학습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일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그것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활동일지'란 차시별로 학생들이 문제중심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한 것으로, 해당되는 수업 단계에 필요한 부분을 메모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연구자가 실시한 실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1) 첫 번째 편지 -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세요.

발신자 : 복지당 출신 행정자치부 장관 홍길동
 수신자 : 한강 컨설팅 미디어 팀
 제 목 : 시장 선거에 즈음하여

저의 오랜 친구 박영광씨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내 친구의 선거 운동 본부장인 김동욱씨에게 여러분들을 선거운동의 홍보 담당자로 추천했습니다. 김동욱씨에게는 지난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하튼 이 친구의 당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선거 운동을 잘 도와준다면 다음에 또 나의 선거 운동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동욱씨는 제 친구의 프로필과 공약, 그리고 선거 지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보내줄 겁니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 친구가 완벽하지는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운동은 해봄직한 도전입니다. 시장 후보로 나온 제 친구는 건전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 지역사회에 진솔한 공약을 제시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2004년 10월 10일
 △△부 장관 홍길동

(2) 두 번째 편지 - 우리 후보와 상대편 후보

발신자 : 김동욱(박영광 A시 시장 선거 운동 본부장)
 수신자 : 한강 컨설팅 미디어 팀

박영광씨의 선거운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박영광 후보의 홍보입니다. 우편물 또는 언론을 통하여 박영광 후보를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광 후보와 상대편의 프로필, 각자의 공약, 선거 지역의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박영광(우리측)후보 자료, 2. 장영실(상대측)후보 자료, 3. 정책 쟁점 사항

(가) 자료1. 박영광 후보

① 프로필

36세 남성. 우등으로 법대를 졸업, 법조계에 종사한 적은 없음. 대학 졸업 후 경비 시스템 사업을 시작하여 10년째 계속하고 있음. 7명의 종업원을 두었음. 미혼이며 자녀 없음. 늙은 어머니와 이모를 부양함. 정치 활동 경험은 없으나 국가 공공사업에 관여한 경험은 있음. 시민사회단체 몇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젊은이들의 스포츠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야외스포츠동호회 멤버로서 스케이트보드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김.

② 출마 이유

최근 시내에 유료 공원 조성을 추진한 바 있음. 공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인 결과 공원 조성에 성공하였음. 이 일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끌었고, 공원이 조성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음. 지방 정부는 갖가지 규제로 방해만 했지 도움은 못줌. 바로 이러한 점이 그를 출마하게 하였음. 그는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는 무책임하다는 점을 느꼈음. 그는 공직 경험은 없지만, 사업가의 감각을 정치에 활용해보기로 결심함.

③ 공약

a. 지방 정부의 개혁

정부가 시민들의 필요에 좀 더 잘 반응하도록 지방 정부를 바꿔보는 것.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혁하는 것.

b. A시의 개발

상권 조성을 통한 지역 개발은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소할 것임
시를 개발하여 젊은 부부와 젊은 학생들을 유입시킬 것임
지역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할 것임
복지나 공공 정책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임. 이것을 위해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함

(나) 자료2. 장영실 후보

① 프로필

61세 여성. 지방 경찰서에서 20년 이상 서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관. 시장으로 출마하기 전에는 경기도 의회의원도 지낸 적이 있음. 이 지역의 사정에 아주 밝은 사람임.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가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② 박영광과의 관계

박영광과 장영실은 의견 대립을 겪은 바 있음. 장영실은 열린 공간을 유료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광은 유료 공원 모금 활동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유료 공원을 조성에 찬성하자, 장영실은 당황하여 유료 공원 조성에 찬성하였음. 결국 유료 공원으로 전환되자 그 후 장영실은 박영광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음. 그녀는 박영광을 건방진 “애송이”라며, 오래된 터줏대감인 자신에게 감히 도전한다고 생각함.

③ 출마 이유

그녀는 박영광이 추진하려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막고, 지역 토박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마하였음. 장영실이 표를 얻으려는 유권자는 이 지역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웠고, 은퇴 후에도 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살기를 원하고, 지역에 대규모 상권이 개발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 지역의 노년층임.

(다) 자료3. 후보자들의 공약에 나타나야 할 쟁점 사항들

① 대규모 상업지역 조성

몇몇 대규모 할인점(아울렛)이 이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쇼핑 아울렛의 건설은 지역 개발 찬성론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쇼핑 아울렛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증가한 세금 수입은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 찬성자들은 쇼핑 아울렛이 이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중산층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개발 반대자들은 상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와 교통 체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범죄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의 해결과 교통 체증으로 인한 도로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그 밖의 불필요한 공공 서비스로 세금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이들은 대규모 할인점이 동네 상점들을 망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② 지역 고속도로 건설

시 정부는 지역 간 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유권자들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회의적 반응이다.

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통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이들은 지역 내 빈부 격차 문제는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끔찍한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속 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에 주목한다. 이들은 지역 간 접근성의 증대는 더 많은 지역 개발과 더 많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③ 범죄율 증가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조직 폭력배 범죄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늘려서 폭력배의 활동이 억제되고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아이들이 방과 후, 저녁, 주말 등에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 개설되었으면 하고, 또 저렴한 가족 놀이 공간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경찰의 주민 보호 체계가 강화되길 원하고, 관공서에서는 거리 곳곳이나 학교에 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지역 주민의 특성

이 지역은 대도시의 도심으로 30분 정도 운전해서 출근하는 통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통근의 불편함 때문에 새로 생긴 집들이 잘 안 팔린다. 그러나 근래에 상당수의 젊은 가족들이 전입하고 있어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 젊은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듯 이 지역에도 젊은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주민들은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왔고 서울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서 행해지는 지역 개발 때문에 탁 트인 녹지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 상점이 생겼으며, 학교는 학급 당 학생 수가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 학교가 늘어나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학교 증설을 미루고 있다.

(3) 세 번째 편지 - 우리의 열세

발신자 : 김동욱(박영광 A시 시장 선거 운동 본부장)

수신자 : 한강 컨설팅 미디어 팀

침부된 여론조사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영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박영광의 비리에 대한 폭로가 유권자들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알려지고, 박영광의 비밀이 공개된다면 우리 측 지지도는 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5%의 감소분은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이점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영실이 비장의 카드를 내걸어 우리가 밀리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우리가 현재 작성 중인 선거 공약 유인물과, 장영실이 퍼뜨릴 박영광 후보 비리 폭로를 방어할 우편물을 인쇄하고 발송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방법을 재정 팀에서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현재의 자금사정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광고에서 우리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고, 장영실의 아들과 관련된 약점을 들춰낼 것입니다. 장영실 측에서는 우리가 다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측의 약점을 파헤칠만한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대중에게는, 우리의 대응이 장영실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편물과 신문 광고 이외에도 우리는 언론사에 우리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 달라는 식의 보도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 자료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언론이 그것을 내보낼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신문사 측이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도해 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요일 장영실이 우리 측 후보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하기 이전에 우리의 행동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목요일 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우편물의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이든 장영실 후보의 폭로에 대한 반박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신문 광고와 보도 자료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우리가 예상한 부정적 소문을 잠재우는 내용일 것과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리 진영은 공약에 초점을 두고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불행히도 대중들은 흥미로운 스캔들을 접하면 공약에는 관심을 덜 갖습니다.

(4) 네 번째 편지 - 치명타

발신자 : 홍길동 장관

수신자 : 김동욱 & 한강 컨설팅 미디어 팀

월요일 :

큰일 났습니다. 과거 내 선거운동 본부장을 지냈었던 측근에 따르면, 장영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박영광 후보의 비리에 대한 우편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영실 측 계획은 유권자들이 월요일 즈음에 우편물을 받아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영광 측은 선거 전에 그에 대응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못 갖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멋지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영광 후보는 법대 재학 시절 그가 세 들어 살던 집에 가짜 명품을 들여놓고 판매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박영광씨를 체포했다는 법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징역을 살지는 않았습다.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박영광씨를 체포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영광씨는 그 후로 학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때의 일로 인해서 법조계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자 도의회 의원이었던 장영실 후보는 이 사건을 접할 수가 있었고, 압수된 가짜 명품 가방을 찍은 사진과 체포 당시의 박영광의 사진을 경찰의 사진 기록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중소도시의 시장 선거 같이 작은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 측이 이 문제를 악용하리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에 간과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닥 희망에 될법한 희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장영실 후보에게는 26살 된 아들이 있죠. 이름은 장혁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겼지요. 10여 년 전에 이 아들은 장영실씨 앞에 나타나서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여자'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서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지역 주민 몇몇만이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OO 고등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1.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읽고,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다음 표를 채우시오.

주요 공약 사항	이 공약에 찬성할 지역 주민들	이 공약에 반대할 지역 주민들	우리 후보자가 취할 것 같은 입장 (이력사항 고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후보자가 취해야 할 입장
1. 대규모 상권을 조성하자				
2. 지역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자				
3. 범죄율 증가 억제를 위한 놀이 공간을 늘리자				
4. 지역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표를 채웠으면, 여러분들이 내세울 선거 운동 메시지를 표현해 보세요. 선거 운동 메시지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1) 박영광 후보는 선거 운동에서 위 문제들 중에서 특히 어느 문제에 주력해야 할 것인가?

2) 어떤 슬로건을 내걸 것인가? 예) 이제는 정권교체를 해야할 때!

3) 박영광 후보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반복 어구를 내걸 것인가? 예) 준비된 시장 박영광!

4) 왜 여러분들은 이 전략을 세웠는가?

3.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박영광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신문 광고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시오.

2) 박영광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언론에 흘러야 하는 보도 자료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연구 변인

가.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수업방법 (문제중심학습과 강의식 수업)이다.

나.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정치 지식(일반 정치 지식과 수업 내용 지식)에 대한 학업 성취도 변화와 정치적 태도(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관용)와 참여 성향의 변화이다.

3. 연구 대상 및 절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 학급 중, 남학생 반 여섯 학급을 선정하였다. 각 학급의 인원은 각각 35명 내외로, 총 204명이다. 각 학급의 2학기 중간고사 사회 성적(A반 65.4; B반 64.9; C반 71.4; D반 62.7; E반 70.0; F반 66.2)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091$, $p=0.366$). 따라서 실험 대상인 여섯 학급은 지식에 대한 성취도에 있어서 비교적 동질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각 학급은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차이와 성별 차이가 통제되고 있다. 한편 여섯 학급의 모든 개별 학생을 무선 할당하는 것은 학급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현실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급 단위로 세 학급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 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2004년 10월 2주에 걸쳐(4차시) 1학년 사회 시간에 이루어졌다. 우선 여섯 학급을 무선 할당하여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였는데, 실험수업과 강의식 수업 모두 연구자에게 훈련받은 동일한 교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 진도와 함께 네 시간을 학습하고, 실험 집단에서는 계획한 실험 절차에 따라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몇 가지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학습자의 정치 단원에 대한 선수학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 정치 지식(General Political Knowledge)과 수업 내용 지식(Specific Content Knowledge)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치 태도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 효능감, 정치적 관용, 그리고 참여 성향에 대한 문항들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검사를 마친 후 실험처치를 2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 검사의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설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실험설계

집단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X2	O4

- X1: PBL 수업, X2: 강의식 수업
- 사전검사 :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 사후검사 :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4.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5. 측정 도구

가. 일반 정치 지식(General Political Knowledge)

일반 정치 지식 측정 문항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정치'의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민주정치과 정부형태, 정당과 이익집단,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국제사회 등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수업 내용 지식(Specific Content Knowledge)

해당 내용 지식 측정 문항은 고등학교 '정치' 교육과정의 대단원인 '정치과정과 참여'에서 특히 '선거와 참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 정치적 태도(Political Attitude)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정치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3문항,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3문항, 관용을 측정하는 2문항, 그리고 참여성향을 측정하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회과 수업은 정치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심도(Political Interest)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elman, 1974). 실험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도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신문에서 정치 기사를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TV프로그램에서 정치 관련 내용(뉴스 등)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부모님과 대화 중 정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등 세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① 거의 안한다. ② 한 달에 한번 이상 ③ 일주일에 한번 이상 ④ 거의 매일)로 측정하였다.

둘째,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세 문항을 포함시켰다.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Easton & Dennis, 1967), “나는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 우리가 촛불시위를 하면 시정될 수도 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건의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등 세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 들 문항에 대하여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정치적 관용은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차이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Avery, 1992).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에 대하여는 “내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국민에게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도 좋다.” 등 세 항목에 대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참여 성향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 투표권이 주어지면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반드시 참여하겠다.”(투표 참여성향), “사회 문제가 생기면 집회, 인터넷 여론 형성, 공직자나 정치인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겠다.”(비투표 참여 성향) 등 두 항목에 대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정치 지식에 대한 효과

가. 일반 정치 지식(General Political Knowledge) 성취도

일반 정치 지식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업 이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0.29의 향상을, 통제집단은 0.28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와 같이 paired t-test 결과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수업 방법에 따른 일반 정치 지식의 성취도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전체	7.63	7.91	1.84	.068
통제집단	7.53	7.81	1.24	.217
실험집단	7.72	8.01	1.35	.180

그리고 일반 정치 지식의 집단 간 성취도 변화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수업 방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0144, p=.786$). 즉,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일반 정치 지식은 약간 향상되었다고 보이며, 실험 수업(문제중심학습)과 강의식 수업이 비슷한 정도로 학생들의 일반 정치 지식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업 내용 지식(Specific Content Knowledge) 성취도

수업 내용 지식에 대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였다.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평균 1.34의 향상을, 통제집단은 1.11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Paired t-test 결과 두 집단 모두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업 내용 지식의 집단 간 성취도 변화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두 수업 방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437, p=.509$).

<표 3> 수업 방법에 따른 수업 내용 지식의 성취도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전체	4.92	6.13	9.43	.000***
통제집단	4.79	5.90	5.76	.000***
실험집단	5.05	6.39	7.62	.000***

(* : $p<.05$, ** : $p<.01$, *** : $p<.001$)

결국,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수업 내용 지식은 향상되었다고 보이며, 실험 수업(문제중심학습)이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내용 지식 습득에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2. 정치 태도(Political Attitude)에 대한 효과

가.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업을 받은 후에 정치적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0.56의 향상을, 통제집단은 0.55의 향상을 보였는데,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ired t-test 결과 두 집단 모두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수업 방법에 따른 정치적 관심도의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통제집단	1.95	2.50	-10.89	.000***
실험집단	2.07	2.63	-8.99	.000***

(* : $p < .05$, ** : $p < .01$, *** : $p < .001$)

또한, 수업을 받은 이후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한 정도'는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3.690$, $p=.056$). 즉,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정치 단원의 학습은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를 향상시켰으나,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업을 받은 후에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0.18의 향상을, 통제집단은 0.08의 향상을 보였는데,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ired t-test 결과 통제집단은 .05 수준에서, 실험집단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수업 방법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의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통제집단	2.37	2.45	-2.47	.015*
실험집단	2.31	2.49	-5.38	.000***

(* : p<.05, ** : p<.01, *** : p<.001)

또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 결과 두 집단의 정치 효능감의 변화 정도는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F=4.598, p=.033). 이러한 결과는,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정치 효능감은 증가하였지만,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정치 효능감이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6> 수업방법에 따른 정치 효능감 변화의 차이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p
선호도 변화	집단간	.466	1	.466	4.598	0.033*
	집단내	19.567	193	.101		
	전체	20.033	194			

(* : p<.05, ** : p<.01, *** : p<.001)

다.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치적 관용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업을 받은 후에 증가를 나타냈다. 실험집단은 평균 0.19의 향상을, 통제집단은 0.09의 향상을 보였는데,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ired t-test 결과 통제집단은 .05 수준에서, 실험집단은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수업 방법에 따른 정치적 관용의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통제집단	2.82	2.91	-1.994	.000***
실험집단	2.07	2.63	-3.806	.000***

(* : p<.05, ** : p<.01, *** : p<.001)

수업을 받은 이후 정치적 관용이 증가한 정도는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252$, $p=.135$). 즉,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정치 단원의 학습은 학생들의 정치적 관용도를 향상시켰으나,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성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업을 받은 후에 정치적 참여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0.18의 향상을 나타냈고, 통제집단은 0.01의 향상으로 미세한 증가를 나타냈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ired t-test 결과 실험집단은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8> 수업 방법에 따른 정치적 참여 성향의 변화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통제집단	2.92	2.93	-1.900	.850
실험집단	2.31	2.49	-2.804	.006**

(* : p<.05, ** : p<.01, *** : p<.001)

수업을 받은 이후 정치적 참여 성향이 증가한 정도는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865$, $p=.051$). 즉,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정치 단원의 학습은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 성향을 향상시켰으나,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참여 성향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0.18 대 0.01)임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문제중심학습과 강의식 수업의 정치 사회화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정치 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용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문제중심학습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갖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정치 지식 습득 면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학업 성취도에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일반 정치 지식의 측면과 수업 내용 지식 모두에서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집단이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네 가지 태도 영역에서 향상을 보였고,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관용의 측면에서는 모든 집단이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향상을 나타내었고, 변화의 정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참여 성향의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의 변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정치 효능감과 참여 성향이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의 정도도 실험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정치사회화, 즉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태도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진도에 맞추어 1학년 정치 단원을 선정하여 문제중심 정치수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 문제중심학습이 지식의 측면과 태도의 측면 모두에서 효과적인 수업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정치적 지식의 습득에서도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중심학습 방법이 내용 지식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업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수업 방법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문제중심학습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태도의 습득에 대단히 효과적인 수업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먼저 정치적 관용에 있어서 문제중심학습 집단은 강의식 학습 집단보다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성향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정치 효능감과 참여 성향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민의 자질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여가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증진시켜주었으며, 장차 성인이 되어 실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고양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자(2003). "PBL에 의한 사회과 수업 설계 및 적용." 강인애(편),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 모경환, 최유리(2003). "사회과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분석 -고등학교 경제단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5권 1호.
- 박인옥(2001). "문제중심학습(PBL)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합리적 소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학연구, 40권.
- 백순화, 정인철(2003).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지리 교수 학습 모형의 설계와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권 1호.
- Albanese, M. & Mitchell, S.(1993). "Problem-based learning: A review of literature on its outcomes and implementation issues." *Academic Medicine*, 68, pp.52-81.
- Avery, P. et al.(1992). "Exploring Political Tolerance with Adolescent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0(4). pp.386-420.
- Buck Institute for Education(2004). *Problem Based Government*. Novato, CA.
- Duffy, T.(1996). *Problem-based learning workshop*. LG Learning Center, July 28-Aug. 3. Seoul,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 Easton, D. & Dennis, J.(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
- Hughes, A(1997). Toward a more thoughtful professional education for social studies teachers : Can problem-based learning contribut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5(4), pp.431-445.
- Hughes, A., Sears, A., & Clarked, G.(1998). Adapting problem-based learning to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6(4), pp.531-548.
- Merelman, R.(1974). "Public education and social structure: three modes of adjustment." *Journal of Politics*, 35. pp.798-829.
- Mergendoller, J., Maxwell, N., & Bellisimo, Y.(2001). Problem-based learning : Modifying the medical school model for teaching high school economics. *The Social Studies*. pp.73-78.
- Mergendoller, J., Maxwell, N., & Bellisimo, Y.(2000). Comparing problem-based learning and traditional instruction in High school economic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6). pp.374-382.

- Miller, S. & VanFossen, P.(1994). Assessing Expertise in Economic Problem Solving : A model.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2(3), pp.380-412.
- Moeller, B. & Ravitz, J.(2005). "Documenting and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in High School Economics Classrooms." Presented at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ontreal, Canada. April 2005.
- Savery, J. & Duffy, T.(1994). Problem-based Learning : An instructional model and its constructivist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34(7), pp.9-15.
- Vernon, D. & Blake, R.(1993). "Does problem-based learning work? A meta-analysis of evaluative research." *Academic Medicine*, 68, pp.550-563.

<Abstract>

The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on High School Students' Political Socialization

Kyung-Hwan M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tructions in Social Studies. We translated "On the Campaign Trail" from the Problem-Based Government curriculum of th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into Korean and introduced it to the students in six classes taught by a single teacher in a private high school.

Students in six classes were pretested on general political knowledge, unit-specific content knowledge, and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tolerance, and a will to participate. Then the classe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one of the two different instructional strategies: PBL and the traditional instruction used by this experienced teacher.

Finally learners took post-tests that measured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their *attainment of political knowledge and their political attitud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PBL i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instruction methods in terms of acquiring general political knowledge and unit specific knowledge,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2) PBL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strengthening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tolerance, and a will to participate. Specifical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iscernable in political efficacy and a will to participate.

Key words: problem-based learning, general political knowledge, unit specific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attitude, political socializ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